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 ② 직장 동료·상사·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많았다.
-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수행의 적
- ⑦ 불교 제대로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 ⑧ 한달에 한번 집중 수행 필요
-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 ⑩ 인터넷은 수행정보의 보고

# 돈? 마음 비울때 보여요

## 탐욕은 재테크의 가장 큰 적 '10% 이익에 만족하기' 습관을

### 부자되는 길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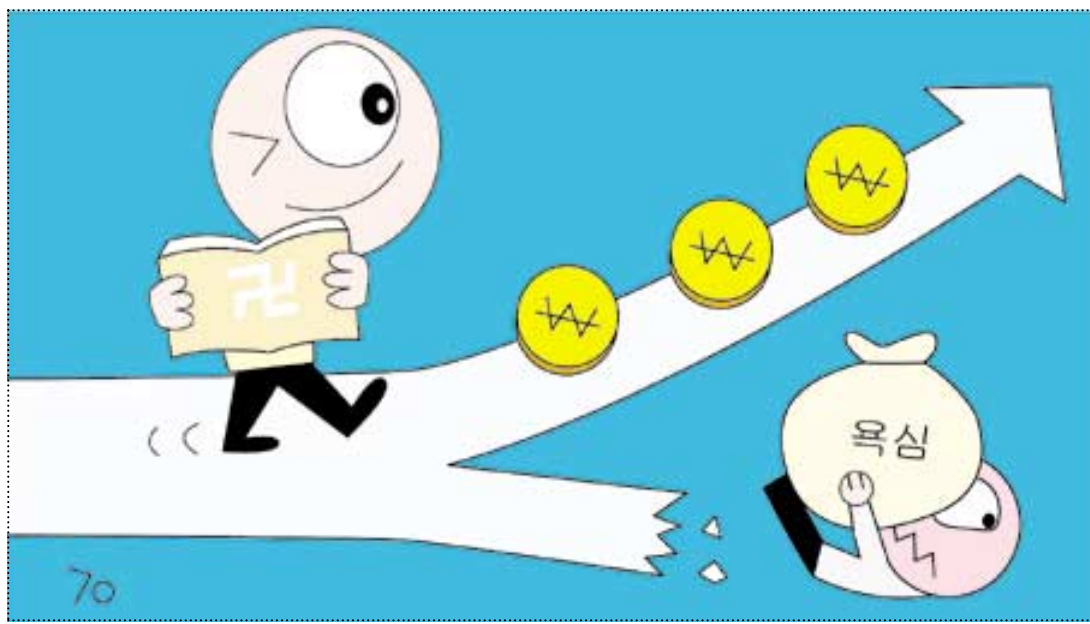
사이버증권투자가 김광태(42) 씨.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수도 없이 오간다. 4개의 증시현황 모니터를 수시로 살펴며 '손실과 이익'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치밀어 오르는 화와 이득의 기쁨도 여지없이 김 씨에게 뒤따른다. 순간순간 요동치는 마음자리에 과보를 즉각적으로 받는 셈.

증권맨 초년병 시절, 김 씨는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주식을 했다. 주식장에 떠도는 뒷이야기에 솔깃해 좇대 없이 맹목적인 투자를 했고, 그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다가왔다. 사는 주식마다 매번 하한가를 쳤고, 쪽쪽 '장롱주식'이었다. 이렇게 아등바등 살기를 5년째, 김 씨가 불교에 입문하면서 주식실패의 원인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간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한 것이 문제였다. 불혹의 나이에 넘게 접하게 된 불교, 돈 버는 법은 탐욕이 아닌 바로 '있는 그대로 사물을 직관하는(如實之見)'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었다. '여실지견'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단번에 알게 했다. 팔아야 할 때와 사야 할 시기가 확연히 드러났다. 김 씨는 지금 수익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흔히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그 욕심은 탐욕심이였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버리면 버릴수록 더 커지고, 비우지 못한 생각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게 했지요. 이별 바에는 그 탐욕을 180°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큰 이익을 보겠다는 집착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착 돈이 별리더군요."

<마음만 먹으면...> 된다 심상사성(心想事成) <장승 궤을 떠난 우승택 삼성증권 종로타워지점장(44·부동)>도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 돈 버는 법이 저절로 체득했다. 증권사 VIP 자산관리사로서 '공(空)사상'을 바탕으로 한 <금강경>에서 주식투자 등에서 성공하는 비법을 찾았다. 지난 4년간 만났던 사업가, 자영업자 등 4백여 명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 사실을 나름대로 확인도 해보았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재력가들은 금강경 가르침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여한' 눈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가지수 1000 등 장밋빛 전망을 내



놓는 경제전문가들의 숫자놀음에 흔들리지 않고 종합주가 지수이건 종목이건 평소에도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기회를 봐 오면 사들이었습니다."

우 지점장은 특히 주식투자의 실패 원인은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금강경> 중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에서 불교식 부자 되는 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구절을 '사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주저 없이 사라'는 말로 해석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단골메뉴인 '무소유'에 대한 견해도 자산관리자다운 해석을 내놓았다. '남이 못 보는 길 먼저 보고 남이 못하던 것 먼저 해서 멋지게 성공하되, 그 성공과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 공심이면 '돈 흐름' 보여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번 일터불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임원숙 교사(58·법륜행)가 바로 그 주인공. 임 교사는 발원이 담긴 '올바른 욕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 전 사급제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임 교사가 올해 초 용인 지역에 4억원대 전원주택을 구입할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하라'는 팔정도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가짐을 공심(空心)으로 만들었고, 그순간 '돈 흐름'이 보였다.

"마음을 밝히면 돈 보는 눈도 밝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라는 정견(正見)을 갖고자 노력하다보

불교를 제대로 알면 부자가 된다? '불교와 돈', 전혀 어울리지 않을 두 단어가, 불교는 수행으로 탐욕을 없애라 하는데, 돈 버는 법이 어떻게 불교에 있겠나고 반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불교는 오히려 돈을 잘 벌고 쓰는 법을 경전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럼, 불교는 일터불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또 부처님은 돈 벌고 쓰는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돈 벌고 쓰는 법을 한 수 배웠다'는 일터불자들. 이들이 털어놓는 '불교식으로 부자되기' 노하우를 전격 공개한다.

니 무엇이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행 불자회 총무 고정현 차장(42·길상)은 '돈 그릇'과 '마음 그릇'의 크기는 서로 정비례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함수관계에는 보시행이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죠. 혼자만 잘 살려고 마음 그릇을 작게 만들고 움켜쥐려고만 하면 마음이든 돈이든 모두 죽게 됩니다. 마음이 커지면 그에 따라 그 그릇에 돈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 '마음그릇'과 '돈그릇'은 정비례

같은 은행원인 이재상 씨(48·심공)도 같은 생각이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이치와 <반야심경> 중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不生不滅 不增不減)'에서 '선택과 결정'의 지침을 얻었다. '성주괴공'과 '불생불멸...'의 이치는 돈 흐름의 향방을 미루어 짐작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실시간별 증폭이 심한 증시 추이를 짧은 안목으로 판단하면 여지없이 낭패를 보지만, 언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 패턴을 읽어내면 적당한 시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또 손의 계산 기준도 제시했다. 항상 10%의 정도 이익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보다 더 욕심을 부리면 이익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씨는 이와함께 불교식으로 돈 쓰는 법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보시'라고 강조했다. '보시'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불법의 진리를 맞보는 학습이 수행이듯이, 보시는 일종의 '수업료'가 된다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우리불자회는요

###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는 1999년 9월 1일 15명으로 창립 모임을 시작해 그해 10월 7일 회원 및 가족 50여 명이 쌍계사 말사인 운흥사에서 능륜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창립과정에서 분사와 타 사업소의 많은 자문을 받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회칙을 제정해 회원의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는 삼천포 화력본부 내에는 약 20여 개의 서클 가운데, 우리 반야회가 회원수나 활동상황으로 볼 때,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는

바른 생활이라고 판단,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법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시끄럽게 뛰어다니며 떠들더니 어느새 옆에 가만 가만 다가와 앉을 줄도 알고 고사리 같은 작은 두 손으로 합장하며 절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두견새 지저귀는 고요한 저녁 산사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노라면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법회는 저녁공양-예절 및 교리교육-법회-다과회 및 토론회의 순으로 실시하며 활성화대책, 자기행사계획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 회원들이 2011년 6월 대구 동화사 성지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화요일은 법우애·동료애로 행복한 날 가족법회·성지순례 신행 돈우는 활력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반야회는 각 회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포교활동에 힘입어 현재 회원수가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초대회장이었던 정일교 부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손동태 부소장의 적극적인 격려에 앞으로 더욱 더 활동적인 불자모임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 반야회는 회원을 5개팀(총무, 교리연구, 조직·홍보, 오락·선교, 봉사활동팀)으로 구성해 각 팀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기법회는 처음에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인근 운흥사에서 봉행하고 있지만, 회사업무 및 회식, 격주 휴무제 등으로 회원의 참석률이 다소 저조해 화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보다 많은 회원 가족이 참석해 보람 있는 생활생활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회는 가장 율

및 현안문제 등에 대한 열린 토론을 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성지순례는 연2회(춘·추) 실시하며 반야회 번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행사라 생각되지만 자금이 다소 많이 소요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례 화엄사, 연곡사, 칠불사, 쌍계사를 다녀왔고, 올해는 지난 6월 10일에 80여 명의 회원 및 가족으로 구성하여 대구 동화사, 깃배위 부처님을 참배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깃배위 부처님opal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이 갖기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봉사활동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어려운 점이 많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형태의 봉사활동을 찾아서 행할 예정입니다.

■강창원 교무이계부 보일래 1과정

###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www.drsoju.com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1. 프로 사주박사(www.drsoju.com)는...

-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입니다.

### 2.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학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2004  
년도

## 정도불교 체육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선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 1.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추도록,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따뜻한 스님을 양성기 위해 **정행외교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능한 '카이로프락틱'**로서의 정통교육을 힘쓰고 있다.

### 2. 교 과 목: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맛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들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치 교육시킴

### 3. 과 정: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지도자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마니 플레이어선

### 4. 모집방법: 2급과정 30명(선착순 마감)

- 지원자격: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불자
- 입학금 및 강의료: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 원서접수: 2004년 8월 7일 ~ 9월 1일 까지

### 5. 입학일시: 2004년 9월 2일 13시

### 6. 원서교부처: 정도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 정도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